

교회의 통일성

Richard B. Gaffin Jr.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은퇴 교수)¹⁾

오늘 저녁에 말씀 드릴 제목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의 통일성에 관하여 중요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주제에 관하여 많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여기에 대하여 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 교회의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에 나오는 용어를 검토하겠습니다. 25장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 교회가 보이지 않는 면으로, 혹은 보이는 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정당한 구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할 때는 서로 다른 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교회를 두 가지 다른 각도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church and invisible church)를 말하기보다 '교회의 보이는 면과 교회의 보이지 않는 면'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구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보이지 않는 면' 혹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교회'(church as invisible)란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교회를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시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교회는 영원부터 역사의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들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보이는 면' 혹은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회'(church as visible)는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우리도 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가 말하듯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원리를 신명기 29:29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책임을 짚어지는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통일성은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은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1) 2011년 10월 12일 강변교회 수요기도회, 통역; 김현수 목사

II. 니케아 신조의 교회에 대한 고백 -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교회의 통일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 신조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고대 교회의 신조를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4세기에 작성된 니케아 신조인데, 교회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신조는 교회의 속성으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라고 합니다. 교회의 통일성, 이것이 오늘밤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 즉, 우주적 혹은 세계적이고 - 사도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조는 성경이 참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살피는 데 유익한 방편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들어서 네 가지 속성을 살피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가지 속성은 나눌 수 없음

첫째, 이 네 가지 속성은 하나에 속하며 서로의 조건이 됩니다.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속성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네 가지는 함께 서거나 함께 넘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에도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곧 참된 일치와 통일성은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일 때에만 존재함을 함축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참된 일치는 교회가 거룩한가, 보편적인가, 사도적인가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이라면 진정으로 거룩해야 하고, 진정으로 보편적이어야 하고, 진정으로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통일성을 이해하려면 이 ‘보편성’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특히 교회의 거룩함과 사도성에 관해서 잘 아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팎에서 무엇이 거룩한 교회이고 사도적인 교회인가를 모호하게 흐려놓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성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 희생하고서는 교회의 참된 통일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사도성, 보편성을 희생하거나 타협해 가지고는 교회의 참된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2. 교회의 통일성의 이유이자 근원이신 하나님

둘째, 교회의 여러 속성들이 교회의 참된 통일성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는가를 살피기 전에 매우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일치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일치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 성삼위의 충만함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는 교회를 삼위일체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신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성신의 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성부, 한 분이신 그리스

도, 한 분이신 성신만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3. 통일성과 보편성

이제 교회의 통일성을 교회의 다른 속성들과 관계하여서 살펴보겠는데, 각각의 경우에 주요 성경 본문들을 간략히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통일성을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본문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²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보편적인 어조가 이 말씀에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19-20절에 교회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에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내리시는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권세입니다. 교회에 내리시는 이 보편적인 명령이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권세에 근거한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초두의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19-20절에 하신 말씀과 그 근거가 되는 18절의 말씀을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장하시는 이 구절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께서 받으신 보편적인 권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보편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전에는 지니지 않으셨다가 이제는 지니게 된 권세입니다.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권세를 지니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주님께서 '받으신'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예수님에게 발생하였기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는 이러한 엄청난 주장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19-20절의 보편적인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의 처음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그들의 노력을 한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8:19-20에서는 동일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 어떤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아십니다. 28장 앞부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되, 단번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조 세계 안에 있던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꺾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의 권세를 주장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충만한 권세, 보편적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중요하게 예언된 내용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사실입니다.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아들, 예수님에게 예언의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와 종이 곧 예수님이심을 신약에서 잘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 49:6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와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모든 나라에 전파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땅 끝까지 보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22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시키고 교회를 위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보편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한 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적이고 명백한 성경 진리에 비추어 몇 가지 그릇된 생각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그 토대가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의 교회의 보편성은 세속의 이념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의 보편성은 민족간의 정체성과 인종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국제주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또한 다문화주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문화주의에서는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관하여 가치 판단을 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보편성은 평등주의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평등주의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를 구분하는 그 역할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관해 생각할 때는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주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28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성별상의 정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해서 지워지거나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차이가 교회 안에서 분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는 인종적인 이유로든, 사회적 경제적 혹은 성별상의 이유로든 갈등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은 서로 연결됩니다.

4. 통일성과 거룩함

다음으로 통일성과 거룩함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4-6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성경이 교회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합니다. 교회는 '집[건물]'에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할 경우에는 곧장 오직 '하나의 집'만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묘사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 성취하여 나가시는 원대한 건축 사업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숙련된 건축가이자 시공자라고 말하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건축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면들을 살펴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건축 자재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의 자재는 '산돌' 곧 '살아 있는 돌'이라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생명이란 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는 건물의 독특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교회는 이 독특한 물질, 살아 있는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엡 2:1)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주재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죄에 오염된 잡석 무더기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성신님 안에서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건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특별한 장소, 즉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차지하고 계신 특별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자들 가운데서 산돌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산돌들 가운데 하나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돌’ 이십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하듯이, 그분은 모퉁이돌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기초석이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께 의존해 있고 주님께서 지지해 주셔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존해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토대이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견고한 바위이십니까? 이 구절들의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논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토대이신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집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21, 24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와 관련하여서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 2:24)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의 토대이신지, 어떠한 방식으로 토대가 아니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매우 지혜로운 교사이시지만, 주님의 지혜 때문에 교회의 토대이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제시하셨을지라도, 그 모범 때문에 토대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토대이신 이유는 주님께서 드린 제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토대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그 제사는 완전했기에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점을 지적함으로써,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사로써 어떻게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는가를 말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드린 제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확고히 서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이 지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곳에서는 교회의 거룩함도 사라지며, 따라

서 교회의 참된 통일성도 사라진다는 점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의 또 다른 면을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5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4-5절에서 교회라는 건물을 묘사한 내용을 돌아보십시오. 산돌로 이루어진 그 영적인 집은 으리으리한 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거닐면서 구경하는 인상적인 기념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집으로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야 할 곳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제사장, 곧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 마디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 곧 새롭고 최종적인 성전입니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인 제사장설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 재발견된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소중한 복음의 실질입니다. 어떠한 인간 제사장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다른 어떠한 중보자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신자의 제사장직을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신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산돌이 된다는 것은 성신님의 권능을 받아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벧전 2:5).

물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섬김’은 포괄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신앙 활동의 특별한 부분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전체로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1:15에서 이미 말씀한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15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45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거룩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교회의 거룩함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니게 된 '거룩한 지위'입니다. 그 다음은 방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신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 때문에 우리가 내놓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청의와 성화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청의와 성화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은 뗄 수 없습니다. 청의와 성화가 함께 있는 곳에 교회의 거룩함이 수립되고 유지되며, 교회는 진정으로 하

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의 거룩함이 잘못 이해되거나 부인되는 곳에는 교회의 참된 통일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 통일성과 사도성

‘교회의 통일성과 사도성’이란 주제로 넘어가 생각합시다. 하나의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19-22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과 비슷합니다. 교회를 똑같이 건물로 묘사합니다. 건축가이시며 시공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에 세워 가시는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바울은 교회 건물의 토대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그 토대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토대의 부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포함시켜 말하는 점에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들의 활동에서 사도들과 긴밀히 연관되었던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의 토대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3:11에서 말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토대이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 토대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일에 어떤 것을 보완하거나 보탬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에 대해 단번에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18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종종 오해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의 토대인 이유는 그의 신앙고백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의 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신에 의해 그에게 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에 관해서 이해해야 할 점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분명하고 충분한 계시를 증언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기록한 성경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 견지하고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20에서 묘사한 기초적인 활동, 곧 사도들과 그들과 관련된 분들의 활동은 신약성경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 함께 교회가 언제나 그 위에 세워져 가면서 존속해야 할 토대가 되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회의 사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사도적 계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사도성에 관한 주제를 요약하자면,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신약성경의 사도적인 말씀을 구약성경의 말씀과 함께 견고하고 충직하게 붙드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진정으로 고백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도적 교훈을 붙잡고 고백하는 곳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이 있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없는 곳에서는, 곧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확신이 없는 곳에서는 교회의 통일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6. 요약

이제 오늘 저녁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의 거룩함과 사도성에 토대를 둡니다. 교회는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사도적일 때에야 참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회의 일치는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가 복음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 - 사도성과 거룩함 - 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III. 교회의 통일성을 견지하는 길

강설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교회의 통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하나 됨을 '견지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교회가 세 가지 표지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볼 수 있는 세 가지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것, 성례를 시행하는 것,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지에 관해서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표지, 특히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일이 성경에 부합하게 충직하고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근면해야 하는데, 특히 목사와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의 일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점인데, 그것은 기도의 중요

성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혹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수립할 수도 없고 견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교회의 하나 됨을 유지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만 교회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견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가 성신님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성신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교회의 신실한 지체들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이른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여러분은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간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번에 그 기도를 드리실 때는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적으로 발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뤄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동시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능력으로 대답해 주시면,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통일성이 견지될 것입니다.